머리말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노령화의 진전, 질병형태 및 가족구성의 변화, 재해질병의 증가 등 사회환경변화로 의료·간병비용이 급증하고 생존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니드가 진료·치료·재활에서 질병예방·건강증진, 장기간병 및 소득보상 등으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건강보험제도는 제도 미비와 급여수준의 미흡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니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구조적인 적자요인 누적과 의약분업 시행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재정이 악화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강화를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노인간병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건강보험제도는 재원조달의 한계와 사회보험의 성격상 국민들의 니드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공·사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공적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민영건강보험이 도입되면 민영건강보험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은 민영건강보험이 초기단계로서 상품개발에 필요한 건강관련 기초통계가 부족하고, 또한 운영기술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니드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민영건강보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영건강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정부에서도 민영건강보험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민영건강보험이 공적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민영건강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민영건강보험의 도입에 대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민영건강보험이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고, 분야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의학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무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한계가 있어 분야별로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이 초기단계로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현행 민영건강상품 운영상의 문제로 실적통계가 불명확하여 향후 시장전망 예측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연구는 의학관련분야 및 시장예측기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2001년도 연구과제로서 보험연구소 박홍민 부연구위원과 김경환 책임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업계 전문가와 이 보고서를 심사해주신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1년 10월

保險開發院
院長 朴性昱